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차한잔 하시겠습니까?”  
이 지연 작가의 인사말이다.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은 아무말없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일없이 있어도 편하다. 말을 하려고 차 한 잔을 나누자고 했건만, 말없이 좋은 차만 마시고 나와도 속엿말을 다 하고 나온 듯하다. 차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다. 차는 그냥 자신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지연 작가가 차를 내 오면, 차 한 모금에 맛과 향기와 온기로 사람과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차를 짓고 만든 사람의 시간까지 입안에 퍼지고 몸에 감각되어 스민다. 그래서 그냥 느끼고 감탄만 해도 소통이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이 지연 작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선암사에서 스님이 내 주신 차를 마시며 ‘어른들은 이 맛있는 차를 왜 마시지?’하면서 차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 차가 운명처럼

차한잔, 그림한폭

삶을 이끌었고 차농사를 지으며 살게 됐다. 고달프지 않은 농사는 없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녹차밭에 작은 사람 한 명이 차를 따고 있다. 작은 손으로 멈추지 않고 차밭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반복했다. 농부였다. 마치 차나무처럼 계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있었다.  
차밭의 사계절, 그 한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차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자연이 품고 있던 생명력 가득한 ‘초록’으로 누군가에게 차한잔을 들고다가가는 것이었다.  
정성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차농사, 자연이 주는 마법같은 시간의 변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붓을 들고 화선지에 담았다.  
수묵담채라는 단순한 기법으로 뉘뉘하게. 그래서 작품에서 이 지연의 차향이 난다.  
“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림을 그려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 지연의 그림은 숨이다.  
숨쉬고 사는 줄 모르고 차농사에 전념하고 살다가 자신의 숨을 찾은 것이다.  
이 지연 작가는 30년간 차밭에서 일하면서 차밭은 그저 일터였다. 여행자들은 차밭을 보며 감탄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끝없이

쳐진 녹차밭은 끝나지 않는 일로 느껴졌던 세월이었다.  
미대를 나오고 그림을 그리던 시간은 농사와 일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차 명인이 되어서야 다시 붓을 들고 화선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며 차밭의 아름다움, 자연에 대한 경이감이 밀려온 것이다. ‘그림을 그리니까 살 것 같았다’라는 작가는 우리차를 알리기 위해 그림책도 냈다.  
예술작업으로 우리 차의 특징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차농사꾼으로 살아온 온 시간까지 더 사랑하게 된 것이다.  
평생 차를 만든 명인이 내 준 차한잔 같은 사계절의 시간을 품은 그림들과 글이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이 지연 작가의 단순한 먹선과 초록의 변주로 표현된 그림에서는 더 맑고 깊은 차향이 난다.  
소란스런 세상에서 툭 떨어져 오늘 하루를 오로지 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맑은 그림과 차한잔이 있다.  
전쟁영화를 부르는 혐오의 시대를 빚겨가려며, 올 가을에는 차밭의 시간속을 전시하는 갤러리에서 차의 숲을 산책하며 생의 깊은 ‘숨’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社說

청정 전남바다 망치는 무면허 양식 더 관용은 안돼

전남도가 무면허 양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해마다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등 무분별한 난립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단속은 총 247건이다. 2020년 78건, 2021년 26건, 2022년 41건, 2023년 58건이며, 올해 들어선 현재 44건으로 시·군 개별 집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면허 양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길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7월 완도군 덕우도 서방 인근에서 163ha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 적발된 바 있다.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 해역에서 김과 전복, 미역·다시마를 망라해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어선 항로 침범 등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 폐해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사회문제화된 현안이다.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전남도가 우심지역 지도선 정박, 연안 시·군 합동 단속, 어업인 대상 교육·설명회 등 사전 차

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고선 근절되기 힘들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김발 한 줄만 해도 벌 수 있는 300~400만원의 벌금으로 어렵도 없다는 것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을 통해 거둔 수익이라면 전부 환수해야 한다. 만약 적발되더라도 미미한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행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관용은 안 된다. 차체에 중형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공권력으로 철저히 가하기 위해 앞서 비양심적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의식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사회 이후 연해 연근해 어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만큼 어민들의 생계는 어려워지고 있다.  
후손에 물려줄 청정 바다를 지켜야 한다. 귀중한 어장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무면허 양식을 제때 뿌리뽑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서 주목받은 광주의 혁신사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열린 정부박람회에서 광주시는 ‘대한민국 표준입니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시관을 마련, 호응을 이끌어냈다. 복지 분야에선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중무휴 24시 공공심어어린이병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정책을 소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드림은행, 일경험드림플러스를, 첨단산업 분야는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모빌리티 육성 등으로 청년의 어려움을 보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취지를 홍보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자전거·보행로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대·자·보 도시’를 공유하고, 광권권역 특별 대책 등 구체 대안을 제시했다.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는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최로 중앙부처 27곳·지자체 20곳·민간기업 52곳 등 131곳이 참가해 117개 전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민·관의 협력과 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복지·청년·첨단산업·대자보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더 일하기 좋은, 더 누리기 좋은, 더 살기 좋은 광주’의 모습과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대표도시의 비전을 선보였다. 실제로 통합돌봄 등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것들로 타 지자체와 기관들이 앞다뉘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정부에서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로 일궈낸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안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로 마무리되는 이번 행사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가 키워드였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청년 정책과 대자보 도시를 전파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광주시가 거듭 주목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확대, 일상 생활 전반에서 체감도를 높이고 내일을 밝히는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주의 우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장이 됐다.

문화난장



최래오  
꽃꽂이작은도서관장

퇴직 후 계획을 세웠다. 하루에 한 번씩 밤하늘의 달과 별을 올려다 보기로 한 것이다. 도시 아파트에선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지내기 일쑤다. 그러나 시골로 들어오면서 달라졌다. 밤마다 보이는 것은 달과 별이다. 시골의 밤은 고요한 정적이 흘러 달과 별이 더 도드라진다. 왓, 별이 움직인다. 보너스로 별과 같은 비행기가 지나간다. 사람들의 꿈을 안고서. 마당에 앉아 하늘 명을 하고 있으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교감을 느낀다. 살갓에 머무는 바람의 감촉이 싱그럽다. 거기서 느끼는 효음으로 자연과 일체감을 느낀다.  
인간은 작은 존재다. 작은 나를 찾으며 하늘 명을 즐긴다. 그렇다. 하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나를 자연에 두면 하늘이 보인다. 나를 그곳에 두면 되는 것이다. 오래 전 일이다. 극단 토박이에서 연극을 가르친다는 현수막을 보면서 배우고 싶었다. 학교교사였던 필자는 기존의 수업방법에 연극처럼 변화를 주는 수업을 접목시키고 싶어했다. 그러나 소심한 성격에 조심스레 극단을 찾아가 물었다. 필자의 나이 또래의 수강생이 있는지를. 또 발표를 시키지는 않는지를. 필자의

나를 어디에 둘까나

나이 또래의 수강생이 있으며 발표를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덟석 수강신청을 했다.  
자기 소개를 하는 첫시간이 시작됐다. 한 명씩 나가서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는 판토마임을 해보란다. 아빨사, 속은 것이다. 필자의 차례가 돼 나가서 판토마임을 한 기억은 있다. 덕분에 내 인생 최초로 다른 사람 앞에서 판토마임을 했다. 그 후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었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배웠다. 나를 연극하는 곳에 두었던 그 시절에는 또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였다.  
젊은 시절, 항상 노래와 춤이 있었다. 기타를 잘 치지 못하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기타 줄을 땀기던 시대였다. 반주가 있어서 분위기가 잡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기타만 있으면 들뜬소리 소리 지르며 즐기는 노래였다. 물론 필자도 노래는 열심히 했다. 부족한 노래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타, 건반, 장구, 드럼 치는 곳에 나를 두었다. 노래 못하면 악기를 배우기 어렵고 배워도 쓸 일이 별로 없다. 장구는 그냥 장단에 따라하면 되겠지 해서 열심히 배우기도 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장구를 치면서 창을 하는 것이었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해서 악기를 배우는 것인데 창을 하라니 더 힘든 시간이었다.  
결국 노래를 하지 않으면서 즐기는 방법을 찾았다. 레크레이션 배워서 노래를 시키는 사회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공했다. 레크레이션 강좌를 들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 레크레이션 자격 시험에서는 레크댄스 시험을 통과 하지 못

했다. 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눈이 내리는 날에 운동장에서 혼자서 연습했던 적이 있었다.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는 레크레이션 수업을 했고, 학년 야외회 행사에는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점차 프로그램 진행비를 받는 프로그램이 됐다.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색하지만 나를 배우는 그곳에 두었다. 부족한 능력에 항상 힘들어 했지만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실수하거나 발표를 잘 못 하게 되면 관중들이 웃어도 괜찮았다. 그 웃음은 1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기에. 그 웃음 뒤에 따르는 여유로움을 많은 실례에서 갖게 됐다.  
배움 중에 최고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그 자료에 공감하며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공부다. 그 공부를 몸으로 실천해서 습관으로 익숙해 지는 것이 몸공부다. 그 때 최고의 방법은 낯선 곳이나 새로운 곳이 있는 곳에 나를 두는 것이다. 어색해 하지 않고 부딪혀 보는 거다.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가깝게 낯선 곳에서 있으면 어르신 하면서 다가오는 고마운 이들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다. 힘들지만 즐거움으로 알고 나를 그곳에 두면 된다. 모르는 것을 한 가지씩 알아가는 데 즐거움이 있다면 낯선 곳과 새로운 것이 설레임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낯선 만남과 낯선 곳을 찾아나서자.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나를 두면 된다. 내일은 나를 어느 곳에 두어볼까?

독자투고

최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와 방범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자동 방범문을 설치한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입주자들의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로 원룸촌을 비롯한 공동주택 보안에 이상이 걸리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동 방범문(개·폐문)은 원룸이나 아파트 입구에 저마다 해당 호실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도록 구조가 돼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입주자만 알고 있어야 할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인데 예를 들어 입주자가 음식을 주문하고서 문을 열어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배달업체의 속도경쟁 요구에 못이겨 배달원에게 방범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자주 집을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입주자가 방범문을 열

내 집 문단속은 내가 책임진다

고 들어올 당시 따라 들어온 외부인을 별의심 없이 제지하지 않고 있어 출입자 통제에 빈틈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입주자들이 불편해 한다며 야예 자동 방범문의 전원을 꺼놓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다세대 방범문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전문 절도범이나 흉악범 사이에 공유될 수도 있어 결국 범죄 표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결국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가 자신은 물론 이웃의 불행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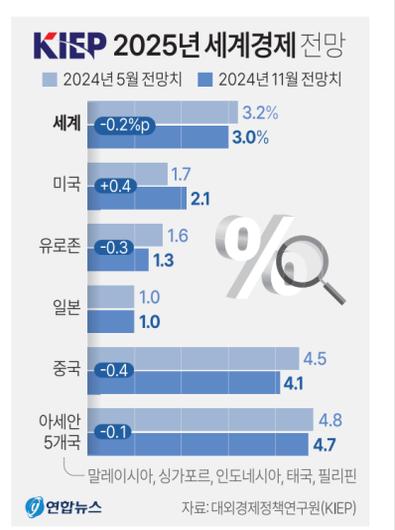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는 주거 침입죄 증가와 함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크다.  
또한 다세대 주택 입구에 설치된 자동 방범문만 너무 맹신한 나머지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의 출입문과 창문 등 시정을 소홀히 할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첨단 방범시스템 시대에 출입자 통제를 위한 자동 방범문 선호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집 문단속은 내가 책임진다’는 철저한 방범의식이다.  
(김덕형·정성경경찰서 경무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KIEP, 내년 세계성장률 3.2→3.0%...‘트럼프즘’美 0.4%p 상향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KIEP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IEP가 전망한 내년 세계성장률(3.0%)은 지난 5월 전망치(3.2%)보다 0.2%포인트(p) 낮은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 IMF(3.2%) 등이 미국 대선 전 내놓은 성장률 전망보다 낮다. KIEP는 내년부터 미국 신정부의 공약들이 일부 이행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중국 등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트럼프즘’ 강화로 성장 우려가 지속하는 미국과 다른 주요 선진국의 성장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렸다. KIEP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 경제 부진 등을 세계 경기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전망치(1.7%)보다 0.4%p 상향된 것이다. KIEP는 관세 인상, 세제개편 등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요건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